

“국내 의사 부족 심화 방치할 수 없는 수준”

정부, 의대정원 증원 의지 재확인

“의료 인력 지역 불균형도 심각”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

국민 피해 발생엔 엄중조치”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최저인 점을 감안하면 의사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심화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해 이제 문제를 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명 정도로, OECD 평균 16만명과 단순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의사 부족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사 인력 지역 편중 현상에 대해선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따르면 내년도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인기 진료과목 쏠림 현상에 따른 필수 진료과목 인력 부족 현상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전

문의 10만 명 가운데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의대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는데,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외사 특별전형 등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외사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한다. 다만 이번 증원 조치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한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의대 정원은 감염내과 정부 시절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어났지만, 2006년 정원이 다시 10% 감축된 이후 15년간 동결된 상태다.

김 1총괄조정관은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방침”이라며 “다만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의료계에 고통을 가중한다며 오는 7일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파업은 7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인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된다.

전공의들과 별개로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의협 역시 이달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희망둥이 물축제’ 즐거운 물놀이 5일 광주시 남구 송하동 신애원 잔디밭에서 열린 ‘희망둥이 물축제’에서 원생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북구, ‘코로나 블루 극복 힐링투어’ 운영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 19로 침체에 빠진 지역 관광의 수요 촉진 및 활성화에 나선다.

5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 블루 극복 힐링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투어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재충전

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어려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체를 지원하게 된다.

투어는 북구 주민 또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고, 오는 9월 중 북구청 홈페이지와 광주관광협회 예약시스템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투어는 1회

당 20명 이내로 총 2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북구는 8월내에 투어를 운영할 북구내 여행업체 25곳을 모집한다.

선정된 업체는 음식체험, 시가문화권, 무등산 트레킹 등 북구와 인근 시·군·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투어상품을 개발·운영하고 북구는 상품 개발비, 홍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초등학교사 임용 절벽...8년만에 350명→11명

광주교대 임용시험 합격률도 60%대로

학령인구 감소로 광주 지역 초등학교사 임용 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학의 임용고사 합격률도 60%대로 떨어져 10명 중 4명은 임용을 위해 재수 이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5일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2021학년도 공립 초등학교사 임용시험 시험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선발예정 인원은 유치원 35명, 초등 10명, 특수학교(유치원) 10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21명 등 76명이다. 초등교사로만 한정하면 11명(장애인 2명 포함)으로 8년 전에 비해 32분의 1 수준이다. 2013학년도 350명(장애인 8명), 2015학년도 125명(3명)으로 세 자릿수를 유지해오다 2016학년도 20명(2명)으로 급감한 뒤 2017학년도 18명, 2018학년도 5명으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2019학년도와 지난해는 10명으로 두 자릿수를 회복했지만, 장애인 1

명씩을 제외하면 일반 신규 교사는 9명으로 여전히 한 자릿수다.

이처럼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든 데는 기형적 연령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986년 광주와 전남 교육청으로 분리될 당시 주로 대도시인 광주로 이동했던 경력자들이 수년 전 대거 퇴직하면서 50대 이상이 많지 않고, 30대 이하의 두터운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어 신규 교사 충원이 쉽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기계적으로 줄인 점도 수급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하더라도 임용고사 합격자가 지난해의 반토막 수준이 됨에 따라 취업 준비생들의 심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광주교육대의 초등학교 임용시험 전체 합격률은 지난 2017년 89.5%에서 지난해 63.0%로 30% 가까이 하락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지방경찰청장 김교태·전남지방경찰청장 김재규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김교태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 전남지방경찰청장은 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이 맡게됐다.

경찰청은 5일 최관호 광주지방경찰청장을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내정하고, 김남현 전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임명키로 하는 등 5일 치안감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김 신임 광주경찰청장은 강원 춘천 출신으로 강원도·경찰대(3기)를 졸업한 뒤 1987년 경위로 임관한 뒤 2006년 총경으로 승진, 춘천경찰서장, 관악경찰서장,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찰청 재정담당관 등을 지냈다.

2014년 12월 경무관 승진 후에는 전남청 제1부장,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김 신임 전남경찰청장은 고흥 출신으로 순천고,



김교태 청장 김재규 청장

경찰대(27기)를 나왔다.

1986년 경찰에 입문해 전남청 보안과장, 삼척경찰서장 등을 지내고 경무관(2015년 12월)으로 승진해 광주청 제1부장 경위보부청 차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았으며 2018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전남 후텁지근한 날씨 속 내일까지 최대 150mm 비

6일 광주·전남지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일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 “북한으로 동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5일 밤부터 전남 일부 지역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는 7일까지 이어질 것이며 이 기간 예상강수량은 50~100mm, 많은 곳에는 150mm가 내릴 것

으로 전망됐다. 6일 아침 최저기온 24~26도, 낮 최고기온 27~30도 분포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일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7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비 피해가 우려되니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관 역사자료 수집

유은총동문회 및 동문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2021년 5월 26일에 100주년 기념관 개관에 맞춰 14만 동문들의 소중한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100년사 연감 제작을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은가족 및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및 교육 발간 책자

- 학교 교사(校史), 학교 요람, 학교연혁지, 교육계획서, 학교문집, 교육활동집
- 새교육 등 교육관련 각종 잡지, 학교 신문, 교지, 학교 발행 간행물 등
-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부교재 등

기록자료

- 사진, 회화, 앨범, 영상자료, 졸업식, 입학식, 운동회 등 각종 행사 사진 및 자료
- 학교 배경의 개인 기념 사진이나 그림, 졸업 앨범 및 우승 트로피, 메달, 상장
- 학습지도안, 학급경영록, 시험지 및 답안지, 성적표, 통지표, 학교일지 등

학교 물품과 서류

- 졸업장, 수료증, 급여 봉투, 고지서, 영수증
- 학교 상징물, 교기, 교가, 교훈, 배지, 상장함, 깃발
- 각종 교구 및 기자재, 타자기, 초기형 컴퓨터, 환등기 등
- 운동회 용품, 호루라기, 매스게임 물품, 모의 수류탄 등

학생물품

- 교복, 체육복, 교련복, 이름표, 모자, 가방, 주산, 학생증, 교표, 도서관 대출증
- 도시락, 일기, 방학생활, 학급 문집, 동아리 문집 등
- 기타 자료 등

접수처

광주동성고등학교(광주상업고등학교) 행정실 062)670-4512,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062)670-4532

학교법인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